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644호 현대불교  
2007년 9월 5일(음력 7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하게 해 나가세요!

마음을 밝히고 안에서 구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늘 "자기 안에서 구해서 마음을 밝혀 나가고 깨쳐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밝히고 안으로 잘 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만났던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주 진짜로 믿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주 급박할 때, 물에 빠져 다 죽어갈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 그 정도가 돼야 '아이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아주 그냥 절박하게 하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아주 절박하게 합니다. "알았어, 절박하게 관해 봐!" 그러면 그 이튿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전화가 또 뚜르르 옵니다. "아이구, 전화하고 나니까 그냥 멧었어. 스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응, 네 전깃줄과 내 전깃줄이 풀이 아니게 돼서, 풀이 아닌 까닭에 풀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 전깃줄이 제일이고 네 전깃줄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전깃줄하고 내 마음의 전깃줄하고 같이 합쳐 봤으니 풀이 들어온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낮게 했다 내가 낮게 했다 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진정으로 믿어야죠. 자기 뿌리를 자기가 안 믿으면 누구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또 스님네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을 이끌어 가는 진실한 당신을 믿어야죠.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경이나 각처의 스님네들이 이끌어 주는 그것은 역시 길잡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길잡이밖에 안 되는데 방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스님네들이 방편을 안으로 두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 기도하고 빌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가톨릭교고 기독교고 전부 그래요. 하여튼 모두 바깥으로 기도하게 하고 바깥으로 믿게 하거든요. 주체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진짜 자기부터 알아야 일체를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모두 타의에서 구하고 있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세계적으로 봐도 다 그래요. 알라신교나 러벳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그런 사람들 다 만나 봤고, 또 어떻게 하나

기웃거리 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격이 많거든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아예 뒤바꿔 놓고 가르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경 한 번을 본다 하더라도 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 이름을 알고 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진실한 자기, 못났든 잘났든, 정말 왜소

고, 당장 '주인공 뿌리아, 너만이 알고 있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길 믿고 진정코 진실한 마음으로 해 보세요, 안되나 되나!

되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바로 방편이자 바로 부처님께서 불난 집에서 애들을 구하기 위해 '사탕 줄 테니 나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장난감 줄 테니 나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와

환자 수가 줄어 힘들어요

**문** 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저 외에 6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서로 환자 수에 대한 경쟁이 보이지 않게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측에서 은근히 월급 문제로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실과 한마음 공부와의 갈등 속에 고민이 많습니니다. 스님의 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다 자기 주인공을 의심하면 죄요, 세상에? 죽는 것도 누가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아픈 것도 그렇고 먹는 것, 싸는 것, 자는 것, 깨치는 것, 이 여섯 가지를 아무도 대신 못해 주는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만이 자기를, 자기 몸을 이끌어 가는데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공은 이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스리고 나가는 선장이라고요. 다스리는 선장은 바로 그 체가 없는 마음의 임자를 그냥 수없이 내보내서 어떠한 용도라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니다. 어느 신도가 말입니다. 예를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쌍둥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는 쌍둥이라고는 어떤 하면 좋냐고 그래요. 두 달이 좀 넘었다던가 그랬는데, 석 달이 채 못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갑나서 예를 쓰니까 내 생각에 '쌍둥이는 무슨 놈의 쌍둥이!' 그러곤 말았거든요. 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또 가 보니까 이제 쌍둥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낳을 달이 됐는데, 낳을 달이 지나도 안 나와서 병원에 가 보니까 얘기가 거꾸로 썼다고 그러더라요. 또, 그래, 생각을 해 봐요. 돈이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서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몸 망가질까 봐... 바로 세우는 데도 아주 크게 뭐가 잘못될 수도 있대요. 하여튼 몸에도 그렇고 좋지 않대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소리 좀 봐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날더러 거꾸로 된 거 바로 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저 한마음 선원의 대행 스님한테 가서 바로 서게 해 달라고 그러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그러고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곤 정말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2, 3일 후에 가서 검사해 봐!" 그랬죠. 그래 그 이튿날 가니까 "어! 바로 됐네." 이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똑같아요. 실천하는 건 똑같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너무 커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도 바로 거기서 다 해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의심할 상황이 아니예요.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하고 못나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도 역시 자기 원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소 그 자체 불성은 변하지도 않는 거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자체의 불성은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를 떠난 자립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당장 급하신 분들이나 처음 선원에 나와서 마음 공부를 접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면으로 믿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줄도 모를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아시고 하여튼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진실히 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그 괴로움을, 애고들, 번뇌를 번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진실하게 가지고서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한마음 공부 하는 사람으로서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데 만 과장들이 정도를 벗어나 좀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환자 수를 늘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감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어차피 환자도 인연이 있어 만나는 것이라고 자위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줄어들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 전생의 업보가 현재에 술술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 離緣公告

속명: 최기훈  
법명: 상진  
법호: 경허(鏡虛)

상기자는 1999년 4월 일운스님의 법제자로 입실 건당하여 鏡虛(경허)라는 법호를 받고도 다시 다른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건당하여 수봉이라는 법호를 받는 등 본 문도회의 뜻을 여법히 따르지 않는바 일운스님의 이연결정과 본 일운문도회에서 제명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향후 당호(鏡虛)사용을 일체 금지할것을 공고하며 가사 장삼 계문 조과 발우등 입실건당과 관련한 모든 사물을 9월 20일까지 문도회총무소 입자에게 반납 하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31일

일운문도회 일동

##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전자식 2종문 3중경보 **특히**

##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닫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 사암등록 및 행사모집

- ◆ 각 사암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 행사, 동자에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저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사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사 및 동자 자격기준

- ◆ 나이 :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 ◆ 학력 : 고졸이상
- ◆ 나이 :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 ◆ 6개월 교육후 수계(에비스님)
- ◆ 문의: 총무실장 010-4802-5288  
010-2039-5288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